

왔다. 주몽신화를 쾌러디한 코믹한 스토리에 최근 이글아이 컨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종수와 영화 복면달호에서 영똥녀 연기를 잘 소화해낸 이소연을 캐스팅, 재미있는 상황을 잘 살려냈다는 평이다.

촬영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루어졌는데 병그레 관계자에 따르면 '이종수와 이소연의 탁월한 연기, 말레이시아의 날씨 등으로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광고를 제작했다'며 '이종수의 끊임없는 애드립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현장에서 더해진 새로운 아이디어 등으로 보다 좋은 작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새책소개] 오리콤 40주년 기념 휴먼 바이(Human Buying) 발간



‘ 눈을 먼저 믿게 하라’, ‘ 귀가 기억하게 하라’, ‘ 뇌를 끄덕이게 하라’, ‘ 입을 반복하게 하라’, ‘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라’, ‘ 욕망을 꿈틀대게 하라’, 이 지시어들은 모두 어디에 해당하는 법칙일까? 다름 아닌 현대사회 문화, 트렌드의 첨병인 광고에 대한 법칙이다.

광고회사 오리콤(대표 고영섭)이 5월 1일 창업 40주년을 맞아 광고 전문 서적 '휴먼바이(Human Buying)'을 발간했다. 오리콤은 1967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광고회사로 한국 광고업계의 산 역사이자 수많은 광고 인재들을 배출한 광고사관학교로도 유명하다. 이 책은 창업 40주년을 기념하는 책이지만, 여느 회사 사사(社史)처럼 역사를 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40년 광고 캠페인 속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광고의 법칙을 소개하는 광고학 교과서로 광고사 40년에 새로운 이정표를 놓기 위해 기획됐다.

‘휴먼바이(Human Buying)’은 사람의 감각을 사로잡는다는 의미. 1960년대 광고나 2007년 현재의 광고나 인간의 감각은 변

함없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광고의 출발점인 '소비자에 대한 이해', 그에 앞서 커뮤니케이션의 1차 관문인 감각에 대한 보다 원초적인 이해와 탐구를 통해 소비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을 찾아온 것이 오리콤 40년의 역사였고, 앞으로 40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광고는 사람의 감각을 사로잡는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정통부, 내년부터 포털에 사회적 책임 부과

내년부터 대형 포털업체들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동영상이나 광고 등을 방치하면 정부의 직접 규제를 받는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5월 23일 '포털이 미디어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분야로는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치, 광고, 미디어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털들이 그동안 발전해 온 것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통부에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반을 편성했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입법화하거나 필요하면 행정규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포털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등 시장감시기관에서 포털에 대한 감시 강화 의지를 밝힌 적은 있지만 포털 산업을 관장하는 정통부가 규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